

##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 분석

김정현\*<sup>1)</sup>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

### A Study on the Dietary Patterns affecting Acculturation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Urban Area

Kim, Jung-Hyun\*<sup>1)</sup>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 Abstract

The Korean society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in its population, with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The objective is to investigate the dietary patterns as an accultur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 The research target was 89 marriage immigrant females in Daejeon, in whom 50.6 % was in their twenties and 49.4 % was in their thirties to forties. 39.3% of the subjects was from China and 28.1 % from Vietnam, which showed similar pattern to the ratio of marriage immigrants' homeland in Korea. As age goes higher, cultural adaptation in Korea was the integration pattern. Marriage immigrant females from Vietnam showed the highest rates of marginalization pattern as cultural adaptation. Moreover, those with longer marriage duration and with children tend to show higher rates of integration pattern. 'Food attitude', 'food diversity', and 'balance life' as eating behaviors are related with acculturation. In conclusi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 showed integration acculturation patterns, which could be influenced by their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residence period and Korean language ability and food diversity as dietary patterns factors. Further study with a quantitative analysis is need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dietary patterns on acculturation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도시형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 결혼이주여성(Marriage Migrant women), 문화적응(Acculturation), 식생활행태(Dietary Patterns)

---

1) 교신저자: Kim, Jung-Hyun  
Tel: 042-520-5424, Fax: 070-4362-6292, E-mail: jhkim99@pcu.ac.kr

## I. 서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새로운 문화 속에서의 삶은 문화적응의 한 과정이며, 이는 겪어나가야만 하는 생활의 과업이 되었다.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생활양식 중 인간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부분은 식생활이다. 식생활은 식품 선택과 소비 등에서 나타나는 안전과 영양관리 행동으로,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가정의 양호한 식생활은 건강과 직결됨으로,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착해 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대부분이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유입으로 (Ministry of Interior, 2012),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 중국이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26.5%, 일본 7.9%, 필리핀 6.5% 순이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최근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 200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2세를 출산하여 한국인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모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문화적 환경과는 상이한 새로운 문화권으로의 진입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생활양식 등을 배우고 습득해야만 하는 정착의 과정이다(Kim, 2013). 이 과정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육아 및 자녀 교육에서 겪는 곤란, 부부 갈등 등의 문제(Lee, 2013)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문화적응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Cho & Bae, 2011).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근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지속적·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집단적 문화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Barry, 2001). 한쪽 문화에서만 일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 영향을 받아 함께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문화적응의 과정에는 식생활문화적응이 있다. 식생활은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간 삶의 기본이므로, 문화적응에 있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며, 어려운 과제이다.

식생활은 음식을 만들고 먹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로서 특정 지역의 문화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Kim, 2009).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응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으로 이주 전에 지니고 있던 식생활을 유지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문화적응 과정 중 이주자의 식사패턴과 식품선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련의 식생활행태 과정이 문화적응의 한 과정이며, 식생활문화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Jessie, 2003).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식생활에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식생활에 대한 적응을 거치는데, 이는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국의 음식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식생활은 그 나라의 고유한 풍토와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발달되며 역사와 전통과 맥을 같이 하면서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식생활행태는 새로운 곳에서의 문화적응으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화합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문화가정은 가족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일반적인 가족과 달리, 언어, 문화, 생활양식 및 심리 내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어디서, 누구에게 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즉,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새롭게 접하게 되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양식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생활문화는 도시, 농촌 혹은 도서지역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진다(Lim, 2009; Lee & Kang, 2011). 따라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간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심리적응 및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적응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생활행태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겪어 나가야 할 문화적응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이는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문화적 측면과 가족·심리적 측면 등 다각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Kim, 2009;

Choi 2009; Kim 2011). 그러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적응을 유형화하여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들로 매우 제한적이다(Choi, 2009; Yeom & Yang, 2014).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실제 생활 속에서의 기본적으로 부딪치는 식생활행태 관련 변인들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응과 관련된 식생활행태 분석은 전무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 파악을 위하여, 식사에 대한 태도, 식사의 다양성, 생활과의 균형 및 식생활행동을 분석한다. 셋째,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식생활행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규명한다. 즉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 분석 및 그 관련성 규명을 통하여, 양호한 식생활관리와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 1.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신의 문화를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간 접촉에 의한 다양한 문화접촉으로 문화적응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다. 문화는 동일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 신념, 가치 그리고 습관과 관습으로, 의식주 생활을 기본으로,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등의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Landrine & Klonoff, 1994).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의미이며,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따라서 문화적응은 능동적 행위로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접촉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또는 결과로 볼 수 있다(Berry, 2001). 문화적응은 문화접촉 상황에서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이다. 문화적응과 유사한 개념인 상호문화화(interculturation)는 문화 간 접촉 상황으로 인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구성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Chung & Yang, 2004).

문화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의 행동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문화학습(Culture learning) 이론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Furham & Bochner, 1986). 또한 문화적응 이론은 일원론과 다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원론적 문화적응은 원래의 문화에서 주류문화에의 적응까지의 단계를 일직선상으로 보는 것으로, 본래 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완전한 문화적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언어, 가치관, 행동양식, 생활패턴, 식생활문화 등에서 원래의 문화와 주류 문화가 양립하는 것이 아닌, 한 쪽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Berry와 Kalin(1995)는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집단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접촉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변화의 과정을 문화변용으로 설명하였다. 다원론은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주류사회에 대한 문화습득 정도와 자국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된 것이다(Berry, 2001). 따라서 문화적응은 본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본국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유형(Integration), 본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유형(Assimilation), 본국의 문화를 고수하는 분리유형(Segmentation), 본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에서 갈등하고 어느 행동도 하지 않는 주변화유형(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Berry, 2005).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으로 한국 문화 습득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통합유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선호되어온 문화적응 형태로, 최선의 정신건강 상태를 이끈다고 알려져 있다(Yoon, 2003; Park, 2008).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의 문화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을 포기한 채 한국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강요된 동화과정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carle & Ward, 1990; Bae, 2011).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문화적응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이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Kim, 1998).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이 민족정체성이 강하며,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인들의 사회적 통합 유형 및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문화적응에 대한 척도(Berry, 2001)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인을 위한 다원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문화적응척도(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가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다원론적 문화적응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측면을 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Lee, 2003; Noh, 2007).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상의 문화적응 분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은 다원론적 접근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다(Bae, 2011).

## 2. 도시형 다문화가정의 식생활행태

다문화 사회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과 공존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양한 문화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이들 간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로서의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Kim, 2011). 즉 다양한 문화들의 수용과 인정 그리고 공존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다문화 환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 지역의 다문화 환경은 농어촌이나 도서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형 다문화적 특성은 농어촌 지역에 비하여 보다 더 문화적 다원성을 이루고 있다.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다. 즉 매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일반론 보다는 다원론이 그리고 새로운 문화 혹은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동화유형보다는 원래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통합유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im, 2009). 도시형 다문화가정인 경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 종교, 전통, 그리고 사회적 관습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문화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화적 갈등과 문화적응을 보인 영역은 식생활이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은 식생활문화를 통한 문화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 음식의 강요와 모국 음식의 제한이 가장 대표적이며, 식사준비 역할 분담, 식생활 관리 측면에서도 나타났다(So & Han, 2012). 하지만,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한국 음식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주제적인 행위들을 동시에 실천하는 등 가족 내에서 음식 문화를 변용하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순응보다는 문화 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었다(Kim, 2009).

식생활행태란 일련의 생활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식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매일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볼 때, 식사의 식단이 매일 매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되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사법과 패턴은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이와 같이 무심히 하고 있는 일상의 식생활에 관한 행동이나 행위는 모두 식생활에 관한 행태이며, 이는 어떤 한 지역에서 먹는 것에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양식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식생활행태란 인간이 일상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자연스런 식사 섭취 행동, 즉 식품가공체계와 식사 행동 체계를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및 외부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으로, 식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으로 볼 수 있다(Yoo, 2006). 따라서 인간의 식생활에 대한 목적과 역할은 우선 인체의 생명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의 공급으로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식생활을 통하여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식생활행태는 인간생활에 대한 심리적 충족을 위한 역할을 한다. 식생활을 통해 정신적인 만족감과 안정을 얻음으로서 전체 생활의 깊이와 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식생활은 이처럼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식품 소비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식생활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의 식생활 행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기본이 되는 것은 식사구성안이다. 식사구성안

은 집단의 식생활행태의 특성을 기반으로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식품들이 각기 함유한 영양소가 다르므로,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품이 적절히 함유된 식사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영양결핍 뿐 아니라 과잉의 영양섭취도 건강에 해로움이 밝혀져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함으로, 식사구성안은 이러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안되었다(Korean Dietary Reference, 2010). 우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에 대한 식사구성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은 예로부터 음식 섭취 목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식재료 외에 독특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이점이다. 베트남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채소, 생선을 주로 섭취하고 간식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65%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는 식품의 다양한 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외 필리핀은 곡류를 가장 많이 먹을 식품으로 권장하고, 채소, 과일, 샐러드류는 많이 먹을 식품으로, 우유 및 유제품과 수조육류는 적당히 먹을 식품으로, 지방, 설탕, 소금은 약간만 먹을 음식으로 권장하고 있다. 몽골은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중국과는 달리, 하루 섭취 식품으로는 육류 3회, 채소, 과일, 견과류는 각각 2-3회, 곡류 1회, 유제품 1-2회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생활행태는 특정 집단에서 공유된 음식을 섭취하고, 맛을 알아가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는 문화적응의 과정이며, 국가나 민족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정이다. 따라서 식생활행태는 개인이나 집단이 식사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식사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지, 그리고 식생활이 생활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측면이 적절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 분석을 위하여 식생활행태 변인으로 식사에 대한 태도, 식사의 다양성, 생활과의 균형 및 식생활행동 등 4가지 변인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3.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식생활행태

문화적응은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면서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문화적 요소들과의 매우 복잡하고 동적인 관계에 있다. 식생활행태는 출생 후 성장하면서 습득하고 형성한 식생활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이며 생활양식으로 그 지역을 떠나더라도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 문화적응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식생활행태 역시 일반적인 문화적응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식생활행태를 통한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일상적 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중요하다. 실제 일상에서 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음식만의 특유의 깊은 맛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식사를 준비하고 가정에서의 식생활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여러 요소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문화적응을 위한 식생활행태 분석은 수행하기 쉽지 않다.

국외의 경우, 문화적응과 식생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Yang 과 Fox(1979) 그리고 Satia와 Galanko(2007)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로 섭취하고 있는 식사가 중국식사인지, 미국식사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문화적응이 높을수록 미국식 음식에 대한 섭취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Lee, Sobal과 Frongillo(1999)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사 구성과 식사에 대한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미국식 식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식생활행태는 궁극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Yang, Chung, Kim, Bianchi, & Song, 2007).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와의 관련성은 새로운 문화가 건강한 식생활행태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새로운 문화가 건강한 식생활 행태인 경우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례가 히스패닉 여성 중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이나 동화인 경우, 비만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Woodruff, Zaslow, Candelaria, & Elder, 1997).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의 경우도, 식생활행태에서 문화적응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문화로 식생활행태가 변화되어, 미국식사 행태로 적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미국식

사 상태에서 나타나는 성인병 질환인 심혈관질환, 암, 당뇨 등의 유병율은 높고 위압, 감염질환과 결핵의 낮은 유병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ng et al, 2007). Marmot와 Syme(1976) 연구와 Lora, Lewis, Eskridge, Stanek-Krogstand와 Tranvic(2010)의 연구에서도 서양의 식생활행태로 적응된 경우, 서구형 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hen(2009)은 국가적인 성인병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수준, 경제수준과 식생활행태가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식사구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이주 초기에는 미국식사 구조로 변화되어, 고지방식사와 채소 섭취의 감소 현상을 보였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식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Kim & Oh, 1996).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전통 식사를 하는 섭취빈도는 당연히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6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이들은 여전히 김치와 밥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1999). Yang과 Fox(1979)는 이주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미국 식사를 받아들이기도 하며, 가족이 모일 경우는 전통적 중국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으로 나타나는 식생활행태는 새로운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차원이 아닌, 다면적이고 동적으로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Jessie, 200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사회의 한국의 식생활행태가 새로운 문화이지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는 반대로 결혼이주 여성의 본국의 식생활 행태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식생활행태는 건강과 직결되지만, 항상 건강성과의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 분석 그리고 문화적응에 식생활행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행태 확립 및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도모하여,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기반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를 분석하고, 문화적응에 식생활행태 변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식생활행태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비율이 가장 많은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를 모국으로 가진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전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 중 문항별 응답자 수가 100%인 다문화가정 89가정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성된 설문조사 자료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한국어와 해당 국가 언어 모두가 기입된 설문지로 직접기입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의 부연 설명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의 언어가 능숙한 이중 언어 선생님들의 지원으로 실시하였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각각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10문항, 문화적응 측정을 위한 28문항, 그리고 식생활행태 조사를 위한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6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 :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에 대한 조사와 다원론적 문화적응 이론에 근거하여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

학적 특성으로 선행연구(Lee & Kang, 2011; Choi, 2009)에서 유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제시된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즉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 전 모국 국적, 거주기간, 자녀의 유무, 그리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조사하였다. 이 중 한국어 사용 능력은 자가 판단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소통 능력에 대해 상(매우 잘한다), 중(보통이다), 하(잘하지 못한다)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한국어교육 전문가 3인에 대한 자문을 받아, 모든 항목에서 상인 경우를 전체적으로 '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 가지라도 중 이하인 경우는 '중', 그리고 모든 항목이 하인 경우는 '하'로 평가하였다.

- ② 문화적응: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분석을 위하여 다원론에 근거하여 문화적응 유형으로 파악하였다(Bae, 2011). 문화적응 유형은 모국의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새로운 문화나 정체성을 습득하는 정도의 두 독립적 차원으로 측정된 4개의 영역(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구분하였다(Barry, 2001). 통합(integration)은 모국의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습득하려는 유형이고, 동화(assimilation)는 자신의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습득하려는 유형이다. 분리(separation)는 새로운 문화나 정체성을 피하고 모국의 문화나 정체성만 고집하는 유형이며,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어느 쪽의 문화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을 꺼려하는 유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척도를 Bae(2011)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활용한 도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28문항이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60~.65(통합이 (.65), 동화 (.60), 분리 (.62), 주변화 (.64))이었다.
- ③ 식생활행태: 다문화가정의 생활양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행태 평가를 위하여, (Kim et al, 1996)의 식생활행태 분석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 중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식태도에 관한 4문항, 식사의 다양성에 관한 12문항,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 4문

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마다 점수가 부여되어, 식태도는 0점에서 20점, 식사의 다양성은 0점에서 60점,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은 0점에서 20점으로 산출된다. 또한 식생활행태는 위의 3가지 변인의 합계 점수에 각각의 합계점수가 전부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을 가점하며, 전부 8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가점하여 산출하여, 0점부터 110점으로 점수화 한 것으로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식생활행태가 '우수', 60~79점은 '양호', 60점 미만인 점수는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도구이다. 본 척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평가를 위하여 연구 및 교육·임상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일반화된 평가도구로서(Lee & Kim, 201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92으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조사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성 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수행하였으며,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 분석 후 회귀가정으로 검정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89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연령, 태어난 국가가 중요한 변인이 되며, 새로운 문화에 접촉한 기간, 자녀의 유무,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Bae,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령, 출신국가, 거주기간 및 자녀의 유무 그리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Characteristics		N(%)
Age	20 years	45(50.6)	Occupation	Housewife	81(91.0)
	30-40 years	44(49.4)		workers	8( 9.0)
Nationality	China	35(39.3)	Korean Language Ability	Low	27(30.3)
	Vietnam	25(28.1)		Medium	48(53.9)
	Others	29(32.6)		High	14(15.8)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39(43.8)	Education Levels	Elementary	6( 6.7)
	Over 3 years	50(56.2)		Middle	20(22.5)
Present of Children	Yes	48(53.9)		High	40(44.9)
	No	41(46.1)		University	23(25.9)
Total		89(100.0)	Total		89(100.0)

고 한국어 사용 정도 등을 문화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50.6%이었으며, 30-40대는 49.4%로 구성되었다. 중국이 39.3%이고, 베트남이 28.1%으로 구성되어,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비율과 유사하였다. 기타 국가는 몽골, 필리핀, 태국, 카자흐스탄으로 구성되었다. 거주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으며, 자녀의 유무와 직업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듣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15.8%), 중

(53.9%) 그리고 하인 경우는 30.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70.8%로, 선행연구(Lee & Kang, 2011)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Table 2. Accultur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 ± S.D.)			
		Integration	Assimilation	Segregation	Marginalization
Age	20 years (n=45)	2.98±1.03	2.98±1.04	3.51±1.22	2.91±0.88
	30-40 years (n=44)	3.24±0.99	3.05±1.04	3.44±1.19	2.86±0.83
	t	1.780*	0.288	0.597	0.366
Nationality	China (n=35)	3.17±1.08	2.96±1.11	3.43±1.24	2.79±0.91
	Vietnam (n=25)	3.17±0.93	2.83±0.97	3.58±1.18	3.01±0.82
	Others (n=29)	2.92±0.96	2.89±0.99	3.43±1.22	2.15±5.95
	F	0.621	0.033	1.079	2.781*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n=39)	2.76±0.93	2.79±1.01	3.50±1.20	2.77±0.80
	Over 3 years (n=50)	3.31±1.04	2.90±1.02	3.47±1.22	2.93±0.90
	t	7.244***	1.095*	0.269	1.945
Present of Children	Yes (n=48)	3.24±0.99	2.97±1.06	3.51±1.22	2.89±0.89
	No (n=41)	2.93±1.03	2.95±1.01	3.43±1.19	2.86±0.83
	t	2.737**	2.936*	0.095	0.962
Korean Language Ability	Low	2.88±0.57	2.82±0.39	3.11±0.55	3.02±0.43
	Medium	2.95±0.70	2.76±0.56	2.97±0.61	3.01±0.60
	High	3.60±0.65	3.11±0.40	3.48±0.42	3.58±0.49
	F	6.339***	2.698*	4.318**	6.555***

\* p<0.05, \*\* p<0.01, \*\*\*p<0.001



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언어 친밀도, 언어 사용 정도 등으로 비교한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노출은 친구관계 행동, 사회적 선호도는 음식 선호도 등으로도 비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적응 유형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을 보면(Yoo, 2006; Bae, 2011), 새로운 문화에서의 친구관계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은 자신이 어떤 문화적응 정도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문화권을 떠나 타문화권의 언어, 음식, 생활양식 및 관습 등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응은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 수준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11).

본 연구에서는 Barry(2001)의 Eastern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Bae (2011)의 연구에서 수정한 도구를 그대로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문화적응 유형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문화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새로운 문화나 정체성을 습득하려는 성향으로 구분한, 문화적응 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Table 2>, 연령이 높은 경우 통합유형이 강했으며( $p < 0.05$ ), 주변화 유형은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p < 0.05$ ). 거주기간이 긴 경우는 통합유형과 동화유형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통합 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즉, 연령이 낮은 상태에서 결혼한 20대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 사람이다’라는 항목에 높은 점수가 나타나 분리유형을 강하게 보였으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나는 모국어로 생각하는 만큼 한국어로도 잘 생각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학교나 직장에 있는 대부분의 나의 친구들은 한국인이다’에서 높은 점수로 나타나 동화유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라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통합유형으로 나타났다( $p < 0.0001$ ). 한국어 사용 정도는 4유형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적응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통합방안과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Lim, 2009)에 의하면, 한국의 도시형 다문화가정은 이국적인 문화요소를 유지한 채 공존하는 도시 내의 모자이크와 같

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농촌의 경우는 보다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hoi(2009)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본국에 대한 문화의 이질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Kim(1998)은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연구에서, 대부분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주자들이 민족정체성이 강하며,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의 통합과 동화 유형에서 연령 및 거주기간 및 자녀의 유무 그리고 한국어 사용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동화유형보다는 통합 유형에서 보다 더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형 다문화가정은 통합유형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Lim, 2009)와 동일한 결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 주변화 유형은 중국과 베트남이 아닌 기타의 국가가 모국인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낮을수록 그 경향이 유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국가가 다양하다는 특성도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의 소수인 경우 문화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었고, 한국어 사용 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행태

개인이나 집단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 제도, 정책 등을 따라 고유한 식생활행태를 가지고 있다. 식생활행태는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상이한 자연과 사회 환경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것이므로,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같은 민족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환경에 상응해서 변동도 거듭한다. 선호하는 음식이나 식사의 선택은 문화적으로 결정되므로 문화는 음식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식생활행태를 가지게 된다. 즉, 식사의 준비부터 양념, 향신료 등 섭취하는 방법까

지 각각의 특유한 ‘맛’을 가지고 본인만의 특성을 지닌 식생활 행태를 갖게 된다(Spinder & Schultz,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 분석을 위하여 식생활행태를 식사 태도, 식사 다양성, 생활과의 균형 그리고 식생활행동의 4가지 변인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식생활행태 중 식생활행동은 점수화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식생활행동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에서 식생활행동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동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식사 태도, 식사의 다양성,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식생활행동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생활과의 균형과 전반적인 식생활행동에 있어, 중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거주기간과 자녀의 유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다학문

적 연구(Lee & Kang, 2011)에서는, 가정의 식생활 행태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이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12% 정도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식생활행태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거나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아서 자신들의 고유한 본국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의 식생활행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전통적 한국식 식생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So & Han, 2012). 본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식생활행동 점수는 연령이 높고, 중국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어 활용 능력이 높은 경우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은 생활과의 균형 적인 측면에서 유의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다(p<0.05).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식생활행동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문화에서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식사 다양성 측면에서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였다. 식생활 행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 중 식사의 다양성은 새로운 식품에 대한 섭취 행태로 아직

Table 3. Dietary Behavio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 ± S.D.)

Variables		Dietary Patterns			
		Food Attitude	Food Diversity	Balancing with Life	Eating Behaviors†
Age	20 years (n=45)	12.50±3.69	36.52±9.21	13.02±2.91	69.00±14.28
	30-40 years (n=44)	13.72±4.82	38.22±9.09	13.62±3.66	74.13±16.29
	t	0.026	0.140	0.550	2.435*
Nationality	China (n=35)	12.83±3.94	38.54±7.57	14.39±2.84	73.14±14.54
	Vietnam (n=25)	13.38±4.08	37.5±8.87	13.35±3.41	71.82±16.05
	Others (n=29)	10.90±5.00	35.67±10.49	12.14±3.04	67.71±15.58
	F	1.172	1.433	2.894*	2.313*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n=39)	12.26±3.70	37.39±9.66	12.93±3.17	69.76±15.43
	Over 3 years (n=50)	12.83±4.57	37.48±8.73	13.36±3.35	72.10±15.09
	t	0.111	0.246	2.459*	0.786
Present of Children	Yes (n=48)	12.38±4.65	38.07±8.36	13.38±3.15	71.85±15.66
	No (n=41)	12.85±3.78	36.36±10.03	13.19±3.47	70.61±15.10
	t	0.533	0.176	0.721	0.567
Korean Language Ability	Low (n=27)	12.52±4.06	37.15±8.18	13.19±3.01	68.93±18.19
	Medium (n=48)	12.06±4.48	36.19±9.87	12.94±3.44	67.96±16.33
	High (n=14)	13.14±4.42	36.50±10.64	13.21±4.14	70.26±15.02
	F	0.357	0.088	0.063	0.044*

† Eating Behaviors Score = over 80 is good, 60~80 is fare, below 60 is bad p<0.05

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리, 섭취, 조리 등의 관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im & Jung(2014) 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에 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규칙적인 식습관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식생활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 다양한 섭취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양호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의 식사 구성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생활행태의 확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 4.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식생활행태와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식생활행태 변인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합유형인 경우는 20대 연령에서 생활과의 균형 및 식생활 행동, 그리고 한국어 사용 수준이 상인 경우에서 식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p<0.05$ ). 동화유형인 경우, 중국이 본국인 결혼이주여성인 경우와 한국어 사용 능력이 높은 경우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p<0.05$ ). 분리유형인 경우는 20대 연령에서 식사의 다양성에서 역의 상관성이 있었다( $p<0.05$ ). 국외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문화의 식생활에 대한 습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1999). 특히 새로운 문화의 식생활행태가 건강지향적인 경우 그 습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성인병 유발 등 건강상태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Woodruff et al, 1997). Lora et al.(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양 국가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인 서양의 식생활행태로 매우 적응된 경우, 서구형 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적인 성인병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생활행태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Chen, 2009).

그러므로 문화적응의 과정에서는 분명 식생활행태가 관여되

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적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역시, 통합유형에서 식생활행태 변인들과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인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본국의 식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과 한국의 식생활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인 한국의 음식이 건강지향적으로 평가되는 외국인들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유형과 동화유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식생활행태로의 유의적 관련성은 도시형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Lim, 2009)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는 결혼이주여성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의 건강관리에도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올바른 식생활행태 확립을 통한 문화적응은 그들의 한국 사회에의 긍정적인 정착 뿐 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 건강의 예방 및 관리에도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다문화가정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과 식생활행태 변인들인 식사태도, 식사의 다양성, 생활과의 관련성, 식생활행동을 독립변수로 넣어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Table 5>. 분석결과, 통합유형에 대해서만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통합유형의 경우 거주기간( $\beta=0.314$ ,  $p<0.05$ ), 한국어 사용정도( $\beta=0.342$ ,  $p<0.01$ ), 그리고 식사 다양성( $\beta=0.33$ ,  $p<0.05$ )등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로, 문화적응의 통합유형에 거주기간 및 한국어 사용정도 그리고 식생활 행동 관련 변인 중 식사의 다양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화적응 유형에서 동화모형은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인 반면, 도시지역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주의모형에 입각하여, 민족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 Acculturation Pattern and Dietary Patterns

(N=89)

Variables		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Marginalization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ge 20 years 30~40 years	Food Attitude	0.147	0.207	0.061	0.090
		-0.132	-0.102	-0.050	-0.130
	Food Diversity	-0.031	0.157	-0.375**	0.007
		0.076	0.029	0.078	0.104
	Balance with Life	0.250*	0.003	0.059	0.150
-0.093		0.047	-0.064	-0.090	
Eating Behaviors	0.206*	0.205	0.282	0.131	
	-0.096	-0.022	-0.022*	-0.055	
Nationality China Vietnam Others	Food Attitude	-0.041	0.113	0.202	-0.039
		0.220	0.031	-0.170	0.259
		-0.164	-0.198	-0.266	-0.270*
	Food Diversity	0.035	0.205*	0.136	0.115
		0.098	-0.029	-0.078	-0.035
		-0.013	-0.029	0.191	0.047
	Balance with Life	-0.266	0.011	0.047	-0.176
		-0.312	-0.401	-0.343	-0.365
	Eating Behaviors	0.568*	0.307*	-0.080	0.139
		-0.143	0.142	0.211	-0.043
0.073		-0.099	-0.240	0.023	
0.057		-0.011	-0.043	0.023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Over 3 years	Food Attitude	0.059	0.323	0.052	0.00
		-0.105	-0.145	-0.130	-0.115
	Food Diversity	-0.216	0.139	0.197	-0.033
		0.139	0.007	0.069	0.118
	Balance with Life	0.197	-0.023	-0.193	0.112
-0.077		-0.035	0.006	-0.055	
Eating Behaviors	-0.030	0.259	0.085	0.026	
	-0.037	-0.084	-0.044	-0.018	
President of Children Yes No	Food Attitude	-0.114	-0.210	-0.120	-0.088
		0.224	0.328	0.164	0.106
	Food Diversity	0.029	0.030	0.164	0.047
		0.007	-0.012	0.108	0.105
	Balance with Life	-0.237	-0.109	-0.036	-0.150
0.177		0.046	-0.226	0.084	
Eating Behaviors	-0.153	-0.112	0.001	-0.085	
	0.155	0.129	0.042	0.159	
Korean Language Ability Low Medium High	Food Attitude	0.064	0.433	0.359	0.259
		-0.152	-0.208	-0.088	-0.172
		0.104	0.284*	-0.133	-0.228
	Food Diversity	0.096	-0.103	-0.117	0.449
		-0.079	0.072	0.257	0.024
		0.331*	0.190	0.061	-0.085
	Balance with Life	-0.440	-0.147	-0.579	-0.241
		0.098	0.091	0.016	0.123
		0.178	-0.082	0.034	-0.093
	Eating Behaviors	0.012	0.034	-0.200	0.315
-0.103		-0.001	0.152	-0.012	
0.146		0.180	-0.083	-0.176	

\*p&lt;0.05

Table 5. Dietary Patterns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 Acculturation of Subjects.

		(N=89)						
Variables	Predictors	B	t	p	R <sup>2</sup>	Adj. R <sup>2</sup>	F	P
Integration	Age	0.102	0.941	0.350	0.320	0.234	3.757	0.001
	Residence Period*	0.314	2.501	0.015				
	Korean Language**	0.342	3.255	0.002				
	Food Attitude	0.105	0.365	0.716				
	Food Diversity*	0.335	3.022	0.014				
	Balance with Life	0.136	0.612	0.542				
	Food Behaviors	0.101	0.612	0.092				
Assimilation	Age	0.111	0.880	0.382	0.084	0.031	0.733	0.677
	Residence Period	0.020	0.074	0.616				
	Korean Language	0.199	1.632	0.107				
	Food Attitude	-0.275	-0.825	0.412				
	Food Diversity	-0.239	-0.506	0.614				
	Balance with Life	-0.213	-0.826	0.411				
	Food Behaviors	0.566	0.752	0.454				
Separation	Age	0.007	0.058	0.954	0.099	-0.013	0.883	0.545
	Residence Period	-0.043	-0.300	0.765				
	Korean Language	0.182	1.501	0.138				
	Food Attitude	0.141	0.427	0.671				
	Food Diversity	0.723	1.543	0.127				
	Balance with Life	0.196	0.766	0.446				
	Food Behaviors	-0.819	-1.097	0.276				
Marginality	Age	-0.165	-1.399	0.166	0.198	0.098	1.977	0.055
	Residence Period	0.154	1.129	0.263				
	Korean Language	0.323	2.829	0.006				
	Food Attitude	-0.148	-0.473	0.638				
	Food Diversity	0.100	0.227	0.821				
	Balance with Life	0.022	0.090	0.928				
	Food Behaviors	0.010	0.014	0.989				

\*p&lt;0.05, \*\* p&lt;0.01

적 혼성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Lim, 200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화변용 또는 적응 과정에서 식생활행태의 변용 및 적응은 전반적인 문화적응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통합유형의 경우는 거주기간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주요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식생활행태는 음식을 둘러싼 양식, 습관, 예절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Bae, 2011), 식사의 다양성 변인은 유의적인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각 가정에서 식생활행태 변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의 식생활을 익힘과 동시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 행태는 각 가정의 기존 식생활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 음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가족식탁에는 새로운 문화인 우리나라 음식과 또 결혼이주여성 본국의 음식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에 중요한 식생활행태 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출신국가에 대한 고려, 연령 및 거주기간, 그리고 한국어사용 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적응의 한 과정으로 거처나 가야 할 식생활행태와 관련한 다각적 접근을 통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적응 유형에 식생활행태가 어떤 관련성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시 한 곳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이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형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는 것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에서 실시한 조사연구로서 도시형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와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문화나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접촉하려는 유형인 통합유형은 연령이 높은 결혼이주여성, 거주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유형이 긍정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고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접촉하려는 동화 유형은 거주기간이 오래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성이 있었다. 반면, 본래의 국가나 새로운 문화에 대해 어느 쪽도 관련되기를 꺼리는 주변화 유형은 베트남 출신 집단에게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출신국가가 문화적응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많은 연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도시형 다문화가정의 경우, 통합유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Lim, 2009)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식사에 대한 태도, 식사의 다양성 및 생활과의 균형, 그리고 식생활행동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식생활행동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습득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가족은 도시에 거주하던, 농촌에 거주하던, 지역에 상관없이,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식구’란 의미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식생활을 공유하는 즉, 음식을 함께 먹는 식구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음식문화적응은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국의 음식에 대한 이용 현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Park, 2009). 본 연구결과는 도시지역의 다문화가정이 서구의 다문화사회와 유사하여, 동화모형의 적용이 보다 적절하다는 농촌지역과는 달리, 다문화주의모형으로, 본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호혜적인 차원에서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Lim, 2009)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유형으로 의미가 있으며, 식생활행태 변인은 통합유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p < 0.05$ ). 즉, 통합유형의 경우에서만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거주기간, 한국어 사용 정도, 식사 다양성은 문화적응의 통합유형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을 할 경우에는 통합유형과 식생활행태 관련 변인이 중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행태인 식사 다양성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 모국의 식사 구성안에서 나타나는 식생활행태의 장점과 새로운 문화인 우리나라의 식생활행태와의 통합유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양호한 식생활행태, 더 나아가 바람직한 문화적응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로 영위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Bae Y-K (2011). *A Study on the Korean Dietary Acculturation for the Asian Immigrants in Korea: Focus on the Country of Origin and Food Neophob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 & Kalin R.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3): 301-320.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7(3): 615-631.
- Berry J.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Chen J. (2009). Household Income, Maternal Acculturation, Maternal Education Level and Health Behaviors of Chinese-American Children and Mothers. *J. Immigrant Minority Health*, 11: 198-204.
- Choi H-J (2009).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Society welfare*, 61(1): 163-194.
- Cho M-Y & Bae J-H (2011). An investigation on harmony between nature and technolog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Society of Baby-Childhood Education*, 31(6): 427-454.
- Chung J-K & Yang K-M (2004). Recent Developments in Acculturation Theories. *Korea Psychology*, 23(1): 101-136.
-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s to unfamiliar environment. London: Methuen.
- Jessie Satia-Abouta (2003). Dietary Acculturation: Definition, Proces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Int'l Journal of Human Ecology*, 4(1): 71-82.
- Kim D-S (1998). Formation of the Minority Societies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the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in Vancouver. *Canad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1(2): 144-181.
- Kim J-H, Lee M-J, Park M-Y, & Moon S-J (1996). A Study for Eating Patterns of Korean Men. *Korean Journal of Dietary Culture*, 11(5): 621-634.
- Kim J-H (2011). A Study on Home and Family Life Culture of Urba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4(2): 83-99.
- Kim Y-J (2009). Cultural Conflicts and Adaptation Strategies of Korean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about Food. *Rural Society*, 19(1): 121-160.
- Kim Y-S (2013).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3(4): 5-38.
- Kim S-H, & Oh S-Y. (1996). Cultural and nutritional aspects of traditional Korean diet. *World Rev Nutru Diet*, 79: 109-132.
- Korea Nutrition Society(2010),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 Landrine H., & Klonoff E. A. (1994). The African American Acculturation Scale.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0: 104-127.
- Lee M-J & Kang H-M (2011). A Study on the Enculturation State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Islands - Focused on Gang-wha Island, DaebuIsland, Young-jong Island and Yeoung-hueng Island. *Education Culture Research*, 17(2): 77-112.
- Lee H-J (2013). A Study on Child Care Work and Lives of Immigrant Single Moms. *Journal of Women's Studies*, 23(1): 1723-2003.
- Lee S-K, Sobal J., & Frongillo E. A. (1999). Acculturatio and dietary practices among Korean Americans.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99: 1084-1089.
- Lee S-K (2003). Comparison of Models of Acculturation: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3): 282-296.
- Lee Y-M & Kim J-H (2013). *Nutritional Assessment*. Seoul: Hyoil company.
- Lim H-B (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Korea and Its Policy differentia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1(1): 51-74.
- Lim J-R & Jung M-S (2014). Factors Affecting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of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2244-2255.
- Lora K. R., Lewis N. M., Eskridge K. M., Stanek-Krogstand K., & Tranvic D. A. (2010). Correlation of Omega-3 Fatty Acids Intakes with Accultur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in Midwestern Latinas. *J Immigrant Minority Health*.

- Marmot M. G., & Syme S. L. (1976). Acculturation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Japanese-America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3): 225-247.
- Noh H-N (200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Chinese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and settled down in Korea: focusing on the acculturation patterns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Interior Data (2012). Data of Multicultural Marriage Women.
- Park Y-L (2009).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wives adapting to Korea cusine and dietary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R (2008). A Study on the Media Use, Cultural Identity and Acculturation of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6): 237-257.
- Satia J. A., & Galanko J. A. (2007). Comparison of Three Methods of Measuring Dietary Fat Consumption by African-American Adult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7(5): 782-791.
- Scarle W., & Ward C. D.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 449-464.
- So J-S & Han S-N (2012). Diet-related Behaviors, Perception and Food Preferen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ietnamese Wive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7(5): 589~602, 2012.
- Spindler A. A., & Schultz J. D. (1996). Comparison of Dietary Variety and Ethnic Food Consumption among Chinese, Chinese-American, and White American Women.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3(3): 64-73
- Statistics Korea (2012). Korea Immigration Service Data.
- Woodruff S. I., Zaslow K. A., Candelaria J., & Elder J. P. (1997). Effects of gender and acculturation on nutrition-related factors among limited-English proficient Hispanic adults. *Ethn Dis*, 7(2): 121-126.
- Yang G. P., & Fox H. M. (1979). Food habit changes of Chinese persons living in Lincoln, Nebraska. *J Am Diet Assoc.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75: 420-42.
- Yang E. J., Chung H. K., Kim W. Y., Bianchi L., & Song W. O. (2007). Chronic Diseases and Dietary Changes in Relation to Korean Americans' Len of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7(6): 942-950.
- Yeom M-J & Yang S (2014). A Study on the Maternal Cultural and Emotional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ren's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i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3(1): 1-11.
- Yoo Y-E (2006). *Case Studies on the 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 Spouses and Plans for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E-J (2003). The Korean Diaspora: Migration, Adaptation, and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Korean Sociology Association*, 37(4): 101-142.



## &lt;국문요약&gt;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등의 원인으로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를 분석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시 거주 다문화가정 89가구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비율과 유사하게, 중국(39.3%), 베트남(28.1%)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통합유형 성향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과 자녀의 유무는 동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주변화유형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행태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 식사 태도, 식사의 다양성 그리고 생활과의 균형성 및 식생활행동은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유형과 유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식생활행태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한 결과, 통합유형인 문화적응에서 거주기간(31.4% 설명력), 한국어 사용 능력(34.2% 설명력), 그리고 식사의 다양성(33.5% 설명력)이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통합유형에 있어, 식생활행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인 문화적응은 올바른 식생활행태 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12월 5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29일